

정후식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다. 쓰나미 덮치듯 대유행이 일곱 차례나 반복되더니 소강 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가족·친지들과 얼굴을 맞대고 거리 두기 없는 설 연휴를 보낸 것도 실로 오랜만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공급 덕분에이다. 코로나는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한 엔데믹(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엇그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 봉쇄와 강제 격리로 '제로 코로나'를 꺾었던 중국도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 나오자 백기를 들었다. 결국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와 공존을 택하고 있다.

빼앗긴 애도의 시간·추모할 권리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 갔다. 방역을 이유로 일상생활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는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 직장 생활과 모임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립이 심화됐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출생률·혼인율마저 급락하는 등 사회 곳곳에 생체기를 안겼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이들을 허망하게 잃은 것이다. 7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027만 9381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7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러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스와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난 확진자는 3만 3624명에 달한다.

한데 코로나로 숨진 이들은 매일 발표되는 추상적 숫자로만 떠돌고 있다.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와 함께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이터의 하나일 뿐이다. 개별적 죽음의 절절한 사연은 알 길이 없어 철저히 타자화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에게 애도의 시간과 추모할 권리마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사망하면 정부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침에 따라 24시간 내 화장을 해야 했다. 감염부터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유가족들은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먼발치서 고인을 보내야 했다. 장례마저 화장시설 포화로 며칠씩 지연됐다.

더욱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나 기저질환 악화, 과로·돌봄의 부재로 인한 죽음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없었다면 숨지지 않았을 '초과 사망자'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4만 7516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코로나 비확진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이고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한 시민들이다. 늦었지만 숫자에 가려진 생명의 존귀함을 헤아리고 이름 없이 스러진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사회적 애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전국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정부·의회 차원의 애도 행사를 잇따라 열었다. 이를 통해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통 속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다.

3만 명이 넘는 국민을 잃은 우리나라 역시 상실의 고통이 집단적인 생체기로 남았지만 국가적 애도 분위기는 감지하기 어렵다. 사회적 애도는 지지와 연대를 통해 남은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다. 코로나 이후를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

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범사회적 노력이다.

감염병 하나를 막지 못해 지구 전체가 삼 년 이상 전쟁을 치르는 사이 680만 명이 숨졌다. 누구도 코로나가 이처럼 오래 이어질지, 엄청난 희생자를 내지 예측하지 못했다. 종식의 시간표는 엔서니 파우서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의 말처럼 "바이러스가 정할 것"이다.

문제는 인류가 자초한 기후 위기로 인해 감염병은 더 자주, 더 파괴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지카바이러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바이러스 출몰 주기는 점점 단축되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약한 고리 '공공 의료'부터 강화를

사회적 애도는 감염병에 또다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을 대책과 자연을 착취하는 삶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코로나는 민간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허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환자 병상이나 음압병실이 부족해 대기 중 숨지는 사태도 속출했다. 더 늦기 전에 공공 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필수 의료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의사와 공공 병원 부족 탓에 광주·전남에서는 날마다 네 명이 이상이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힌다. 공공의료원의 부재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의 현실도 방치해선 안 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6월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며 발표한 보고서 제목이다. 바이러스는 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노린다. 언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경고다.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요리도 못하는 간 큰 남자

칼을 선물하는 풍도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요리를 배워서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라는 뜻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리하는 쉼없는 남자, '요섹남'이 인기를 끈 지 오래됐고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은 온통 긍정 이미지다. "귀엽고, 관찰으며, 근사하고,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새롭게 느껴진다." 요리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몇 년째 하고 있다가 올해는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수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 서지자 학습센터를 검색했다. 한식, 일식, 중식, 동남아식, 지중해식 요리 등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했다. 특별한 요리보다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는 것이 낫다는 친구들의 조언도 들었다.

가까운 구립 학습센터의 '아빠 요리 교실' 과정에 등록했다. 모두 12명인데 세 명씩 네 개조로 편성해서 배운다. 남자 수강생들만 있어서인지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같은 조의 한 분은 벌써 1년째 다니고 있다. 칼질과 도구를 다루는 솜씨가 달랐다. 점점 요리가 재미있어서 계속 다니고 있다. 지금까지 차려준 밥상을 잘 받아 왔으니 이제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되기도 했다. 요리를 통해서 만사지를 얻을 수 없어도 '간 큰 남자'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히 실습 때 만든 요리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과

같이 먹는 즐거움이 있다. 감사의 훌륭한 레시피 탓인지 남다른 정성인지 모르지만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 가족들의 환호와 격려가 이어진다. "드디어 아빠가 해준 요리를 먹게 되는구나" "사진 찍어서 친구에게 자랑해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즉에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이 들어서서 머리보다는 손발 움직이는 일을 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퇴물' 소리를 듣는데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장인'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잔소리보다 할머니의 손맛을 더 좋아한다.

손으로 하는 것 중에는 서예나 그림 그리기도 있지만 요리야말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다. 더구나 밖으로만 들었던 자신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밥은 한술남이다. 한 그릇을 잘 먹으면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만사지(萬事知)를 얻을 수 있다."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말이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의미가 자못 크다. 지금까지 차려준 밥상을 잘 받아 왔으니 이제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되기도 했다. 요리를 통해서 만사지를 얻을 수 없어도 '간 큰 남자'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고



정기연
전 영암심초등학교 교장

초등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하게 하자

교 과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적인 면에서는 문자의 이해와 암기 습득이다. 문자라 하면 숫자도 있고 한글 한자 영문자도 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과 문학의 근원이 되는 한자는 한글 전용이라는 고집에 뒷전으로 밀려 법적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은 빠져 있다.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읽지 못하는 한자 문맹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한자 문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 병기(併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글 전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하고 이어서 교권을 학교에 넘겨 학교 교사가 자녀를 학생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자녀와 학생이 글을 못 읽는 한자 문맹이 된 것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교육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창의 체험 학습 과정 편성 지침에 학교장 재량 시간에 한자 교육을 선택해서 하도록 시달렸다.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려면 국어책을 전교생이 소지하고 있어야 겸인정 한자 교재를 학생들이 지급받아 소지하고 학교에서 안내하고 지도한 방법대로 한자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암기력이 가장 좋은 초등학교에서 암기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못 하고 싶기한다면 후회할 따를 뿐이다. 광주·전남에는 지역 교육자들이 편찬한 겸인정 초등학교 한자 교재가 있다.

지금 시중 서점에는 한자 공부를 독습으로 할 수 있는 교재들이 선보이고 있다. 한자 교재의 선택은 학교에서 선택 사항이나 학생들이 쉽게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게 편집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한자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 초등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발달 단계 중 문자 인식이 가장 빠른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의도적으로 시행하여 한자 문맹을 구제해야 한다.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초등학교임을 알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社說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방적 방류 용납 안 된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자국 일정에 맞춰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연합뉴스 등 외신 기자들과 만나 "작년 8월 방류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봄 내로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방류할 계획이라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화 처리 과정에서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은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전 앞 바닷물과 희석,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보다 낮춰 바다로 흘

려보낸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다. 하지만,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제아무리 오염수를 희석한다 해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어떤 단체들까지 이미 지 역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해양 방류는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예정대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수산물 소비 위기로 전담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를 우려한 탓인지 오염수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다. 원전 오염수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지방 간 의과대 양극화 해법 찾아야

의과대학 진학에서도 수도권 쏠림과 지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와 중료학원이 전국 38개 의과대학의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0-2022년)간 의대를 중도 탈락한 561명 가운데 416명(74.2%)이 비수도권 의대 재학생이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중 전남대의 중도 탈락 학생이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조선태가 32명으로 두 번째였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이 매우 높은 정시에서 합격한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에 지원했다가 반수나 재수를 한 후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지원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병원 취업과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수도권 의대 진학을 고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교육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과대학의 선발 방식 변경

을 바란다.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는 수시에서 각각 71%와 59%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시 선발에서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80%까지 상향시키자는 주장이다. 고향에 대한 유대감이 강한 지역 인재들로 수시 전형 인원을 채우고 그만큼 정시 인원을 줄이면 미래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시로 선발한 학생이 중도 탈락하면 결원을 나중에 메울 수가 없다. 지역 의과대학의 교육 품질 향상과 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 쏠림과 지방 기피 현상은 여전히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의사는 지역 병원 근무를 꺼리고 환자들은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길 원한다.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 대학과 교육계가 '의대 중도 탈락'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無等鼓 (No-eung-gu) advertisement. Includes text about a drum performan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dvertisem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and subscription rates.